영어어문교육 제7권 1호 2001년 여름

홍익대학교 영어캠프 운영 사례연구

박 연 미
(홍익대학교)

Park, Yoen Mee. (2001). A case study of Hongik English Immersion Progra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7*(1), 67-88.

This paper is to introduce assorted features of a four-week English Immersion Program managed by Hongik English Language Institute for the first time in summer 2000. The program was aimed to provide English learners with the English simulation environment where everything was supposed to be English only. Thus being exposed exclusively to the English surroundings the clock around, the learners who had not had enough opportunities to use the language were able to attain a high motivation for speaking English, which eventually led to the increase of their general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Presenting merits and demerits of the curriculum and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gram, this paper plays a role in directing the program in a more improved way for the future and giving guidelines to other institutes where similar programs are under consideration.

Ⅰ. 서 론

영어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혹은 한 학기 또는 일 년간 영어권 나라로 어학연수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어학연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학연수에 참여할 수 없는 계층과의 미묘한 심리적 격리현상뿐 아니라 막대한 외화유출로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어학연수가 주는 교육효과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1)]

1) 설문지 조사에 따르면 본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중 초등학생의 경우 53.44% 중고등 학

한국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약한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영어교육 환경을 벗어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careclla(1990)가 지적한 것처럼 의사소통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학습언어에 노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어권 나라나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가는 것이 영어 환경에 최대한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외연수의 대안으로 일종의 영어권 나라와 같은 모의 환경[2]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영어환경을 제공하는 몰입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에서 2000년 여름에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 논문은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의 디렉터로서 프로그램의 운영과정과 교과과정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검토는 좀 더 나은 다음 캠프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II. 참여학생 분포 현황

영어캠프는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실시되었다. 초등학생은 전반 2주와 후반 2주로 나누어 두 차례 실시했으며 중고등 학생은 4주 연속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전반 2주 동안 각 반 16명씩 10반으로 160명 후반 2주는 16명씩 9반으로 144명이었으며 중고등 학생이 20명씩 7반으로 140명이었다. 따라서 참여한 학생은 총 444명이었다.

참여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 분포와 지역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이 보여주는 것같이 남녀비율은 초등1차 때 남자가 52% 여자가 48%이고 초등 2차 때는 남자가 51% 여자가 49%로 남자가 더 많았지만 큰 차이가 없고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남자가 47% 여자가 53%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지만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년별로 보면 초등1차 때는 초등 6학년이 55%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초등2차 때는 5학년이 50%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중2학년이 49%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표 2가 보여 주듯이 서울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초등1차 때는 66% 초등2차 때는 51%로 가장 많았다. 중고등 학생의 경우도 46%가 서울에서 온 학생들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 다음으로 경인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다. 이것은 약 70%이상의 학생들이 경인지역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생의 경우 51.61%가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캠프는 모의 영어권 상황을 연출하여 영어만 사용하는 영어생활캠프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 있는 모든 한국어 표지판을 없애고 영어 표지판만을 사용하였다.

표 1

참여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 분포: 빈도수(%)

과정	성별	학 년					합계
		초등3년	초등4년	초등5년	초등6년		
초등1차	남	17(42.5)	16(57.1)	20(54.1)	30(54.5)		83(51.9)
	여	23(57.5)	12(42.9)	17(45.9)	25(45.5)		77(48.1)
	합계	40(100)	28(100)	37(100)	55(100)		160(100)
초등2차	남	8(44.4)	14(42.4)	27(54)	24(55.8)		73(50.7)
	여	10(55.6)	19(57.6)	23(46)	19(44.2)		71(49.3)
	합계	18(100)	33(100)	50(100)	43(100)		144(100)
중고등		중1년	중2년	중3년	고1년	고2년	
	남	23(50)	24(49)	12(46.2)	5(35.7)	2(40)	66(47.1)
	여	23(50)	25(51)	14(53.8)	9(64.3)	3(60)	74(52.9)
	합계	46(100)	49(100)	26(100)	14(100)	5(100)	140(100)

표 2

참여학생들의 지역별 분포: 빈도수(%)

과정	지 역							합계
	서울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초등1차	105(66)	24(15)	1(0.6)	21(13.1)	0(0)	9(5.6)	0(0)	160(100)
초등2차	74(51.4)	24(16.7)	1(0.7)	23(16)	2(1.4)	20(13.9)	0(0)	144(100)
중고등	64(45.7)	32(22.9)	1(0.7)	20(14.3)	4(2.9)	19(13.6)	0(0)	140(100)
합계	243(55)	80(18)	3(0.7)	64(14.4)	6(1.4)	48(10.8)	0(0)	444(100)

III. 학급편성 및 교과과정

1. 학급편성

영어실력만 가지고 학년의 구분 없이 반편성을 했을 경우 학년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반을 학년별로 편성했다. 임시반을 편성할 때 학년뿐 아니라 남녀성비도 적절한 선을 유지하여 편성했다. 캠프 첫날 임시반으로 배치된 학생들은 일정한 문항에 따른 인터뷰 형식의 구두시험을 약 두 시간에 걸쳐 보았다. 학생들에게 순서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할 경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긴장

감을 주기도 하고 또한 먼저 인터뷰를 한 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하게 되는 학생들간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질문을 산발적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마치 자연스러운 회화시간처럼 진행했다. 교사는 학생들을 3단계(High/Mid/Low)로 나누어 평가하며 특별히 뛰어난 경우나 특별히 떨어지는 경우 등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기록하도록 했다.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반편성을 다시 하는데 같은 학년 안에서 상/중/하로 나누고 특별반만 학년의 구분 없이 한 반을 운영했다. 특별반은 해외거주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반 배정을 다시 하는 동안 학생들은 임시반에서 임시담임교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시간부터 정식반에서 정식 담임교사와 수업을 했다[3].

2. 교과과정

하루 수업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2시간으로 총 8시간 이었다. 교과과정을 정규수업(Regular Classes)과 특별수업(Special Classes) 그리고 저녁활동수업(Evening Activities)으로 나누었다.

1) 정규수업

정규수업은 하루에 4시간인데 그 중 3시간은 특정상황과 주제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회화 수업이었다(부록: 정규수업 시간표 참조). 이것은 Cummins(1980)의 언어능력 측정 중 기본적 상호의사 능력(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BICS)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캠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그 날의 주제에 따라 모두 같은 상황에 대한 회화연습을 한다. 각 반의 능력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상황에 대한 표현법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각 주제별로 해당되는 자료를 언어 능력별로 주제 당 양면 50매 정도 캠프 전에 준비해 놓았다. 즉 극히 제한된 단어와 문법 지식만을 가진 학습자에 맞는 자료에서부터 상당한 어휘실력과 문법지식을 갖춘 학습자에 맞는 자료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선별하여 쉬운 것부터 차례로 각 주제별로 폴더에 정리해 놓았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부분을 수업 전에 미리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수업에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학생들의 수준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경우 다음 날 수업에 민첩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교과과정은 제본된 특정 교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

---

3) 참여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첫 날 집결시간이 12시 30분이었다.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대형버스 4대를 준비하여 수도권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캠프장에 도착해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2:00부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녁수업시간이 정식반에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었다.

첫째로 특정 교재를 선택해서 사용할 경우 제일 어려운 점은 적절한 교재 선택이다. 학생들의 능력을 사전에 조사한다고 해도 한 번의 시험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된 교재가 실제 캠프에서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적절한가는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이 따른다. 반면 이번 캠프에서 사용한 교과과정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자료를 유연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어느 교재나 다루는 주제나 문법능력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교재들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를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특정교재를 캠프 기간 동안 사용한다면 선택된 교재에서 다루는 주제와 표현법만을 학습하는 제한이 있다. 반면 이번 캠프의 교과과정은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노출되어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단어나 표현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언어능력이 약한 학습자들은 그들의 수준으로도 한정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효과도 있다.

다음은 특정교재가 포함하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본 캠프의 교과과정은 한 주제에 제시된 자료가 책 한 권 분량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충분한 양의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단지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캠프 전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이다. 또한 여러 책에서 인용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최대화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회화수업 3시간의 정규수업 중 1시간은 그날 배운 표현들을 쓰기와 읽기로 연습해 보는 연습시간(Workbook)으로 할애했다. 이 시간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개인차를 좀 더 잘 파악하여 개별지도를 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정규수업 4시간 중 한 시간은 발음교정(Pronunciation Clinic)시간이었다. 초등학생들은 주로 발음연습(Phonics)으로 발음교정을 했다. 그 날 배우는 특정 발음연습을 위하여 그에 해당되는 운(Rhyme)이나 노래(Chant)를 함께 했다. 반면 중고등 학생들은 발음교정과 함께 발음과 관련된 게임이나 혀가 잘 안도는 말하기(Tongue Twist)를 함께 하면서 지루하기 쉬운 발음교정 수업을 흥미롭게 했다.

2) 특별수업

특별수업은 특별 활동을 통해 언어학습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매일 2시간 요일별로 다른 활동을 한다. 초등학생들은 게임, 노래와 율동, 아트수업이 있는데 아트시간 중 한 시간은 애니메이션이고 한 시간은 사진시간이다. 아트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내의 일정한 수업 틀에서 벗어나 실제 학습을 통하여 특정 표현법과 필요한 용어들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게임과 노래 이외에 비디오와 단편 읽기 수업이었다. 비디오의 경우 한 시간 수업 중 최대 20분 정도를 비디오를 보고 토론을 하거나 무성 비디오

의 일부를 보고 학생들이 각자 자막을 만들어서 역할극을 해 보기도 했다. 중고등 학생이 가장 즐거워했던 특별수업은 Tie-Dye였다. 학생들에게 흰색 셔츠를 한 벌씩 나누어주고 고무줄로 각자가 원하는 모양대로 셔츠를 꼬아서 묶은 후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을 하는 것이다. 이 행사를 할 때 Tie-Dye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자료를 받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읽으며 이론 학습을 먼저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꼬기 모양에 대한 용어를 학습 후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셔츠를 고무줄로 꼰 후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 염색작업에 들어갔다. 염색이 끝난 후 학생들은 염색한 옷을 말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각자가 염색한 옷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돌리어 기억에 남을 여러 가지 사인 작업을 하기도 했다.

수요일은 초등학생과 중고등 학생 공통으로 스포츠 시간을 2시간 가졌다. 스포츠 종목으로는 농구, 축구, 배드민턴, 당구, 탁구 등 기구종목 외에도 오리엔티어링을 통한 체력단련 시간을 가졌다. 스포츠를 할 때는 해당 스포츠에 필요한 용어와 몸짓 및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영어로 배워 스포츠 시간에도 영어를 쓰도록 했다. 스포츠 시간에 쓰는 용어와 표현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현장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또한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리엔티어링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수행해야 할 지령들을 모두 영어로 작성하고 또한 영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업의 목적은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에서 언어를 연습하는 한계성을 벗어나 실제로 체험하는 현장에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시간 영어만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캠프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3) 저녁활동수업

저녁수업은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저녁 식사 후 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이 시간은 일종의 오픈수업으로 일정한 교과과정에 따르기보다는 담임교사들에게 재량권을 주어 그 날의 학생들의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락했다. Krashen(1982)과 Krashen과 Terrel(1983)이 지적한 것 같이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을 때 언어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저녁수업은 담임교사와의 유연성 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적은 수업이다. 하지만 최소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들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편지나 일기 쓰기, 토론시간 등이다. 또한 캠프가 끝나는 며칠 전부터는 졸업식에서 발표할 학급과제[4]를 연습하는데 일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많은 학생들은 저녁시간에 담임교사와 자유로운 시간을 즐겼다(표 7, 표 8, 표 9 참조).

4) 과제 중심 교수법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성취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Duff,1986; Wallerstein,1983).

3. 주말일정 및 특별행사

주중 프로그램보다 주말프로그램이 운영상 더 힘들었다. 주중에는 외국인 교사들과 짜여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반면 주말에는 많은 외국인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한국인 교사들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원자 신청을 받아서 일부 외국인 교사들이 특별수업을 하기도 했지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다. 따라서 토요일 정오까지만 외국인 교사들이 정규수업을 하고 점심시간 이후 특별활동 수업은 일부 외국인 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이 했다. 주말에 실시한 특별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국제회의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영어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게임을 했다. 여러 가지 마술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학생들이 실제로 마술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다. 게임을 진행하는 전문강사가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한 영어로 진행했고 게임이나 마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인 영어 원어민 보조 진행자가 했다.

일요일에는 오전에 연회장에 모여서 예배를 봤다. 중학생반 담임교사 중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사를 중심으로 약 30동안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영어로 율동과 함께 한 후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었다[5]. 일요일 오후에는 본 캠프장인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로 소풍을 갔다. 조치원 캠퍼스에 가서 조각공원을 포함한 캠퍼스 구경을 하고 컴퓨터실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허락했다[6].

2) 중고등학생을 위한 주말프로그램

중고등 학생의 경우도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표 5 참조). 좀 더 새로운 것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스포츠댄스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고 소극적으로 따라하던 학생들이 마지막 주 수업에서는 제법 실력도 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토요일 오후에는 특별강연을 가지기도 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지루해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새로

---

5) 일요일 오전은 학생들의 자유시간으로 쉬고 싶은 사람은 쉴 수 있었고 예배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

6) 또 다른 특별활동으로 보물찾기를 했는데 보물찾기도 영어학습과 연결시키도록 했다. 보물찾기 쪽지에 쓰여진 영어지령을 정확하게 수행했을 때 선물을 주는 방식이었다.

운 강의를 듣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양호했다.

3) 주말 프로그램 선호도 분석결과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설문지의 선호도 순위조사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1번부터 쓰는 것이기 때문에 표의 평균순위가 낮을수록 더 선호한다는 뜻이다. 아래 표 3에서 따르면 초등1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유 운동시간, 컴퓨터실, 비디오감상, 마술/노래/게임 등 단체시간, 홍대소풍, 캠프파이어 순으로 주말프로그램을 선호했다. 이것은 학생들이 주말엔 단체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주말 프로그램 선호도 초등1차: 빈도수(%)

	마술/노래/게임 등 단체시간	비디오 감상	자유 운동시간	컴퓨터실	홍대소풍	캠프 파이어
1위로 선택	30(21)	20(14)	25(17.4)	46(32.2)	7(4.9)	18(12.5)
2위로 선택	19(13.3)	32(22.4)	42(29.2)	23(16.1)	19(13.3)	7(4.86)
3위로 선택	28(19.6)	43(30.1)	26(18.1)	24(16.8)	12(8.39)	9(6.25)
4위로 선택	23(16.1)	29(20.3)	32(22.2)	18(12.6)	20(14)	23(16)
5위로 선택	20(14)	16(11.2)	14(9.72)	13(9.09)	51(35.7)	28(19.4)
6위로 선택	23(16.1)	3(2.1)	5(3.47)	19(13.3)	34(23.8)	59(41)
전체수	143(100)	143(100)	144(100)	143(100)	143(100)	144(100)
평균순위	3.37	2.96	2.88	2.9	4.33	4.47

아래 표 4에 따르면 비디오 감상, 마술/노래/게임 등 단체시간, 컴퓨터실, 자유 운동시간, 홍대소풍 순으로 학생들이 주말프로그램을 선호했다. 초등1차 표 3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주말엔 개인시간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

주말 프로그램 선호도 초등2차: 빈도수(%)

	마술/노래/게임 등 단체시간	비디오 감상	자유 운동시간	컴퓨터실	홍대소풍
1위로 선택	37(30.58)	35(26.52)	14(10.77)	28(23.93)	20(15.15)
2위로 선택	22(18.18)	48(36.36)	21(16.15)	23(16.66)	16(12.12)
3위로 선택	18(14.88)	24(18.18)	45(34.62)	22(18.8)	23(17.42)
4위로 선택	13(10.74)	19(14.39)	30(23.08)	24(20.51)	38(28.79)
5위로 선택	31(25.62)	6(4.55)	20(15.38)	20(17.09)	35(26.52)
전체수	121(100)	132(100)	130(100)	117(100)	132(100)
평균순위	2.82	2.34	3.16	2.87	3.39

반면 아래 표 5에 따르면 중고등 학생들은 비디오감상, 컴퓨터실, 자유운동시간, 마술/노래/게임 등 단체시간 순으로 주말프로그램을 선호했다.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 줄 뿐 아니라 평균순위를 비교해보면 단체시간의 경우 중고등 학생은 3.14로 순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

주말 프로그램 선호도 중고등: 빈도수(%)

	마술/노래/게임 등 단체시간	비디오 감상	자유 운동시간	컴퓨터실
1위로 선택	15(16.3)	40(33.3)	34(29.3)	32(31.7)
2위로 선택	6(6.52)	48(40)	32(27.6)	31(30.7)
3위로 선택	22(23.9)	27(22.5)	38(32.8)	23(22.8)
4위로 선택	49(53.3)	5(4.17)	12(10.3)	15(14.9)
전체수	92(100)	120(100)	116(100)	101(100)
평균순위	3.14	1.98	2.24	2.2

4) 졸업발표회

퇴소 마지막 날은 학부모들과 함께 학습발표회를 가졌다. 졸업식 발표는 각 반별로 담임교사들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은 후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발표가 있었다. 학생들의 발표는 전적으로 자원하는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었다. 처음 신청을 받았을 때는 한 반에서 두 세 명 정도였는데 캠프가 끝나 가는 시점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어떤 반은 70%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다.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발표 내용은 제한이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캠프생활에서 느낀 점이나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들의 변화된 태도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고학년은 환경이나 인생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다. 발표내용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며 담임교사들은 문법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만 수정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아이들 문체를 일부

러 바꾸지 않은 채로 발표하게 했다. 각 반별로 영어 말하기 발표가 끝나면 반 전체적으로 노래와 율동 그리고 단막극을 하는 반도 있었다.

발표회의 일차적 목적은 학생들에게 그 동안 학습한 것의 일부분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외로 무대에 서 본 경험이 없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발표회 준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발표회 준비가 힘들고 부담스러웠는가 : 빈도(%)

	초등1차	초등2차	중고등
그렇다	15(10)	11(8.3)	15(12)
그렇지 않다	97(67)	90(68.7)	72(58)
잘 모르겠다	33(23)	30(22.9)	37(30)
전체수	145(100)	131(100)	124(100)

표 6이 보여주듯이 학생들의 60%이상이 발표회 준비를 힘들다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상식이 이었다. 예를 들면,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소 및 정리를 가장 잘 한 방을 선정하여 시상을 했고, 매일 아침 체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성실한 학생들에게 주는 시상식도 있었다. 각 반마다 “우수학생(Best Student)”을 뽑았으며 전체 학생중의 “최우수학생(The Best Student)”을 뽑았다. 학생을 선정할 때 영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과는 관계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학생들을 담임교사와 진행운영들이 함께 선정했다. 시상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학생들간의 불필요한 감정 갈등이나 경쟁의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4. 강사진 배치와 시간표

대부분의 집중영어 프로그램은 한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의 수가 한 두 명인 것에 비해 본 캠프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원어민 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여러 계층의(성별/나이/출신지) 교사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한 사람에게 익숙해지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

기 위한 것이다. 저녁수업에만 매일 같은 담임교사가 들어가서 두 시간씩 수업을 하고 나머지 수업은 과목마다 다른 교사가 수업을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한국인 대학생이 담임교사였는데 이번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최소 6년 이상 (최대 9년) 영어권나라에서 학교를 보낸 학생들로서 홍익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영문과 또는 영어교육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교사를 대학생으로 한 이유는 아이들이 원어민 강사들보다 한국인 대학생들을 더 잘 따르고 또한 대학생들이 아이들을 더 잘 다루는 점을 감안해서였다(표 7, 표 8 참조). 물론 대학생 담임교사들의 영어실력은 발음 및 언어구사능력에 있어서 원어민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외국인이 담임교사를 맡아서 했다. 초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전 오후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는 과목마다 바뀌었으며 저녁에만 같은 담임교사가 수업을 했다. 초등학생은 2주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시간표를 바꾸어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교사들을 만나고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4주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2주 단위로 시간표를 바꾸어 2주 단위로 새로운 교사들을 만났다[7]. 캠프기간 동안 한 학급에서 만나게 되는 외국인 교사의 수는 평균 7-8명이었다. 과목마다 다른 교사를 배치하고 또 주 단위로 교사들을 교체하여 시간표 짜는 것이 운영상 신경이 많이 쓰이고 번거롭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8].

Ⅳ. 프로그램 평가결과 및 장점

1. 프로그램 평가 결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하여 캠프 마지막 날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교과과정, 주말프로그램, 강사진, 시설 및 운영에 관련된 것들이다. 본 항의 내용과 관련된 문항들만 뽑아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 본 항에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들은 선호도를 순위를 매겨 조사한 것으로 학생들의 호응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과정의 종류와 특정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표 7에 따르면 초등1차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과과정 중 담임교사 수업, 저녁수업, 외국인교사 수업, 연습시간(Workbook), 발음수업 순으로 선호했다. 평균순위를 보면 발

7) 시간표를 바꿀 때 수업은 처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고 교사들만 교체했다.

8) 교사들도 시간표를 바꾸어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의 측면에서도 같은 학생들을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도전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음수업(3.89)과 연습시간(3.87)이 거의 같은 값으로 최하위였다.

표 8에 따르면 초등2차에 참여한 학생들도 1차 때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였다. 즉 담임교사 수업, 저녁수업, 외국인교사 수업, 발음수업, Workbook시간 순으로 선호했다. 1차 때와 다른 점은 발음수업을 Workbook시간 보다 더 선호했다는 것 뿐 가장 선호한 수업의 순서는 1차, 2차 모두 담임교사와의 수업이었다.

표 7

교과과정 종류의 선호도 초등1차 : 빈도(%)

	외국인교사 수업	담임교사 수업	발음수업	Workbook	저녁수업
1위로 선택	18(12.8)	80(55.9)	6(4.23)	4(2.84)	37(26.1)
2위로 선택	40(28.4)	32(22.4)	11(7.75)	14(9.93)	44(31)
3위로 선택	38(27)	18(12.6)	27(19)	28(19.9)	30(21.1)
4위로 선택	25(17.7)	8(5.59)	46(32.4)	44(31.2)	18(12.7)
5위로 선택	20(14.2)	5(3.5)	52(36.6)	51(36.2)	13(9.15)
전체 수	141(100)	143(100)	142(100)	141(100)	142(100)
평균순위	2.92	1.78	3.89	3.87	2.47

표 8

교과과정 종류의 선호도 초등 2차 : 빈도(%)

	외국교사 수업	담임교사 수업	발음수업	Workbook	저녁수업
1위로 선택	26(20.63)	64(49.61)	5(4.09)	3(2.41)	41(32.54)
2위로 선택	35(27.78)	39(30.23)	8(6.55)	8(6.45)	32(25.4)
3위로 선택	33(26.19)	18(13.95)	25(20.49)	27(21.77)	19(15.08)
4위로 선택	21(16.67)	5(3.87)	46(37.7)	33(26.61)	17(13.49)
5위로 선택	11(8.73)	3(2.36)	38(31.14)	53(42.74)	17(13.49)
전체 수	126(100)	129(100)	122(100)	124(100)	126(100)
평균순위	2.65	1.72	3.85	4	2.5

표 9는 중고등 학생의 수업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것인데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담임교사와의 수업, 저녁수업, 외국인교사 수업의 순으로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 발음수업 그리고 연습시간(Workbook)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표 9는 초등학생과 중고등 학생 모두 발음수업과 연습시간(Workbook)이 가장 지루했으며 반면 담임교사와의 수업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표 9

교과과정 종류의 선호도 중고등 : 빈도(%)

	외국교사 수업	담임교사 수업	발음수업	Workbook	저녁수업
1위로 선택	31(26.1)	31(25.8)	14(11.8)	3(2.5)	51(41.8)
2위로 선택	30(25.2)	44(36.7)	22(18.5)	3(2.5)	19(15.6)
3위로 선택	30(25.2)	25(20.8)	28(23.5)	10(8.33)	25(20.5)
4위로 선택	23(19.3)	15(2.5)	41(34.5)	24(20)	14(11.5)
5위로 선택	5(4.2)	5(4.17)	14(11.8)	80(66.7)	13(10.7)
전체 수	119(100)	120(100)	119(100)	120(100)	122(100)
평균순위	2.5	2.32	3.15	4.45	2.33

다음은 특별수업 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자.

표 10에 따르면 초등1차에 참여한 학생들은 게임, 스포츠, 에니메이션, 노래, 사진시간 순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선호했다.

표 11에 따르면 초등2차에 참여한 학생들은 흥미롭게도 초등1차 때와 똑같이 게임, 스포츠, 에니메이션, 노래, 사진시간 순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선호했다.

표 12에 따르면 중고등 학생의 경우도 게임, 스포츠, 노래 순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선호했다.

표 10-표 12가 보여 주듯이 초등학생과 중고등 학생 공통적으로 특별수업 중 게임수업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특별수업 선호도 초등1차 : 빈도수(%)

	노래	게임	스포츠	에니메이션	사진시간
1위로 선택	13(9.22)	49(35)	55(38.19)	21(15)	8(5.71)
2위로 선택	19(13.48)	46(32.86)	37(25.69)	21(15)	16(11.43)
3위로 선택	30(21.28)	24(17.14)	23(15.97)	40(28.57)	23(16.43)
4위로 선택	34(24.11)	19(13.57)	12(8.33)	36(25.71)	38(27.14)
5위로 선택	45(31.91)	2(1.42)	17(11.81)	22(15.71)	55(39.29)
전체 수	141(100)	140(100)	144(100)	140(100)	140(100)
평균순위	3.56	2.13	2.29	3.12	3.82

표 11

특별수업 선호도 초등2차 : 빈도수(%)

	노래	게임	스포츠	에니메이션	사진시간
1위로 선택	24(18.18)	51(39.23)	31(23.66)	20(15.38)	10(7.75)
2위로 선택	21(15.91)	24(18.46)	40(30.53)	27(20.77)	17(13.18)
3위로 선택	15(11.36)	26(20)	23(17.56)	33(25.38)	32(24.81)
4위로 선택	24(18.18)	12(9.23)	26(19.85)	35(26.92)	32(24.81)
5위로 선택	48(36.36)	17(13.08)	11(8.39)	15(11.54)	38(29.46)
전체 수	132(100)	130(100)	131(100)	130(100)	129(100)
평균순위	3.38	2.38	2.58	2.98	3.55

표 12

특별수업 선호도 중고등 : 빈도수(%)

	노래	게임	스포츠
1위로 선택	22(25)	47(41.23)	42(41.58)
2위로 선택	28(31.82)	43(37.72)	31(30.69)
3위로 선택	38(43.18)	24(21.05)	28(27.72)
전체 수	88(100)	114(100)	101(100)
평균순위	2.18	1.79	2

다음은 캠프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표 13

캠프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 초등1차 : 빈도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이 늘은 것 같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귈 수 있었다	독립심을 얻을 수 있었다
1위로 선택	31(30.1)	46(43.4)	41(36.6)	35(33.3)
2위로 선택	26(25.2)	26(24.5)	22(19.6)	25(23.8)
3위로 선택	24(23.3)	24(22.6)	19(17)	20(19)
4위로 선택	22(21.4)	10(9.4)	30(26.8)	25(23.8)
전체 수	103(100)	106(100)	112(100)	105(100)
평균순위	2.35	1.98	2.33	2.33

표 13에 따르면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이 늘은 것 같다'는 항목이 가장 순위가 높고 그 다음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귈 수 있었다'와 '독립심을 얻을 수 있었다'가 같은 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순위 값(2.33)이나 3순위 값(2.35)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표 14

캠프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 초등2차 : 빈도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이 늘은 것 같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귈 수 있었다	독립심을 얻을 수 있었다
1위로 선택	35(40.7)	54(51.43)	31(31.31)	25(28.74)
2위로 선택	19(22.09)	25(23.81)	30(30.3)	14(16.09)
3위로 선택	14(16.28)	16(15.24)	14(14.14)	28(32.18)
4위로 선택	18(20.93)	10(9.524)	24(24.24)	20(22.99)
전체 수	86(100)	105(100)	99(100)	87(100)
평균순위	2.17	1.82	2.31	2.49

표 14에 따르면 초등2차에 참여한 학생들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이 늘은 것 같다'가 1위로 나타났다. 1차 때와는 달리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가 2위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귈 수 있었다' 그 다음이 '독립심을 얻을 수 있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캠프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 중고등 : 빈도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이 늘은 것 같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귈 수 있었다	독립심을 얻을 수 있었다
1위로 선택	39(56.5)	36(43.4)	47(50.5)	10(15.9)
2위로 선택	13(18.5)	28(33.7)	24(25.8)	12(19)
3위로 선택	11(15.9)	8(9.64)	17(18.3)	14(22.2)
4위로 선택	6(8.7)	11(13.3)	5(5.38)	27(42.9)
전체 수	69(100)	83(100)	93(100)	63(100)
평균순위	2.02	1.92	1.78	2.92

표 15에 따르면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귈 수 있었다'는 항목이 1순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2순위인 '영어로 말하고 듣는 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는 항목과 평균순위 값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3, 표 14, 표 15가 보여 주듯이 초등학생과 중고등 학생 모두 모든 항목의 평균순위 값이 매우 작으므로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캠프의 전반적인 호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표 16과 같은 질문을 했다.

표 16
캠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빈도수(%)

		영어캠프를 친구에게 권하고 싶은가	캠프에 다시 오고 싶은가
초등1차	그렇다	76(52.41)	69(47.9)
	아니다	19(13.2)	23(16)
	모르겠다	50(34.48)	52(36.1)
초등2차	그렇다	84(62.69)	86(63.7)
	아니다	14(10.45)	14(10.37)
	모르겠다	36(26.87)	35(25.93)
중고등	그렇다	44(35)	39(31)
	아니다	28(22)	40(31)
	모르겠다	54(43)	48(38)

표 16이 보여 주듯이 "영어캠프를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초등 1차에서 52%, 초등 2차에서 63%가 "그렇다"고 했다. 반면 중고등 학생의 경우는 "잘 모르

겠다"가 4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는 35%이다. "캠프에 다시 오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초등 1차는 48%, 초등 2차는 64%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중고등 학생들의 경우는 "잘 모르겠다"가 38%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중고등 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점

1) 캠프장 시설

본 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영어 모의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로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적 조건은 캠프장소이다. 본 캠프의 목적은 다양한 실생활을 통한 영어학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캠프장이 필요하다. 본 캠프를 진행한 홍익대학교 국제 연수원은 주변시설(예 극기 훈련장, 캠프파이어장, 야외음악당, 잔디축구장, 산책로 등)과 내부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건물 안에는 실내 헬스장, 농구장, 스쿼시장, 당구장, 탁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대형 컴퓨터실, 노래방, 의무실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캠프장의 외적인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교육과정이 좋아도 의도한 캠프 목적을 이룰 수 없다.

2)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장점은 정규수업에서 학습한 주제가 기초적인 생활영어를 총 망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특정 교재를 사용했을 때 보다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었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유창성의 차이가 있지만 초급학생들도 같은 양의 주제를 다 다루어 볼 수 있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초급 수준이라 할지라도 영어권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제한된 어휘와 표현으로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훈련을 받았다. 특별수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사용 동기를 부여했다. 홍익대학교 전임교수들이 참여한 애니메이션과 사진과 같은 아트수업은 홍익대학교의 특성을 잘 살린 수업으로 특별수업의 다양성에 한 몫을 했다.

3) 강사진

수업마다 다른 외국인 강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다양한 계층의 강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표를 바꾸고 중고등 학생은 2주 단위로 시간표를 바꾸어 강사진도 교체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캠프기간 동안 평균 7-8명의 외국인 강사와 수업을 했다. 이와 같은 시간표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거나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보안하기 위하여 담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캠프기간동안 담임교사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특별히 가깝게 느끼며 담임교사들도 맡은 반 학생들을 각별하게 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단체생활을 통한 인성교육

본 영어캠프는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영어사용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학생들에게 단체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의 좋은 장을 제공한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에 비해 방학 중 학생들의 캠프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자기 위주의 편안한 가정생활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Ⅴ. 문제점과 개선책

처음 실시한 영어캠프 치고는 규모가 큰 편이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좀 더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다음 프로그램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첫째로 교육과정과 운영상의 제반 문제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자체 평가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문안을 만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매일 있는 교사회의에서 나름대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을 점검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했지만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 충분한 강사진

둘째로 강사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다. 물론 이번 캠프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 강사당 하루 평균 강의 시간이 7시간 정도였다. 강사들은 7시간 강의를 마다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 일인당 7시간 수업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강의 시간을 최대 5시간 정도로 정할 경우 수업시간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강사가 필요하다.

3.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준비

본 캠프는 한 달간 함께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준비

가 필요하다. 본 캠프에서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진행했으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정규수업은 없었다. 대신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을 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측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다양한 주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다른 캠프와는 달리 영어캠프이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도 영어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선태의 폭이 넓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만한 프로그램을 영어로 운영하는데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영어캠프이기는 하지만 캠프의 단체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이외에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하면 주말에도 캠프장에 머무는 것이 좋다. 반면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 영어 자체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가족활동이나 개인활동을 위해 외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을 한 빈도수는 아래와 같다.

표 17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을 했는가? : 빈도수(%)

	초등1차	초등2차	중고등
예	81(61)	51(41)	99(80)
아니오	51(39)	72(59)	25(20)
전체수	132(100)	123(100)	124(100)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에 대한 설문지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8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 빈도수(%)

	초등1차	초등2차	중고등
예	75(52)	44(33)	67(53)
아니오	39(27)	58(44)	22(17)
잘 모르겠다	30(21)	31(23)	38(30)
전체수	144(100)	133(100)	127(100)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와서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것은 부모님이 찾아오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심리적 격리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출 및 외박을 허용할건지 아닌지를 결정하여, 일괄적으로 주말을 관리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감정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주말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가 프로그램 전체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영하기 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온 다는 점이다. 지리적으로 수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주말에 캠프장을 방문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먼 지방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 부모들이 매 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4. 생활지도

생활지도에 관한 문제도 심각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교사들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학교측에서도 교사들의 개인 휴식시간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은 한국 교사들과 운영위원들이 맡아서 했다. 영어교육의 공식적인 시간이외에 아이들이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한 달간 생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과 고민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

5. 참가자 연령

캠프 참가자의 연령에 관한 문제이다. 이번에 참여한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가장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영어수업이외에 생활지도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했다. 이번 캠프의 목적이 모의 영어환경 안에 최대한 노출되어 영어 구사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캠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시간에 영어교육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캠프와 같은 단체생활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불필요한 수고를 서로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즉 학생들의 동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 어려서 부모들의 권유로 그냥 또는 강제로 참여하게 된 아이들은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캠프에 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6. 학급배정문제

캠프참여자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캠프 전에 배치시험(placement test)을 보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그와 같은 경우 거의 하루를 시험 때문에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운영자 측도 같은 생각에 입소하는 날 당일 인터뷰형식의 시험을 보기로 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일부 학생들은 알면서도 대답을 잘 하지 못 한 경우가 있거나 반대로 인터뷰 당시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답을 잘 했으나 실제 수업시간에는 기대 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반 편성을 한 후 3일 동안은 적응 및

관찰기간을 두어 상향 또는 하향 조절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반 조정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 또한 가볍게 넘기지 못 할 문제였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이 못해서 다른 반으로 혹은 잘해서 더 잘하는 반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도 처음 며칠 동안은 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왜냐하면 한 반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 반에 있는 기존의 다른 학생의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 편성은 캠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캠프 당일에 반 편성을 함으로써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입소 첫 날은 거의 반 편성으로 정신없이 지나가기 쉽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교육 시간을 주기 위해서도 반 편성은 캠프 전에 해야한다. 또한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생활영어캠프이기는 하지만 어는 정도의 규격화된 시험이 필요하다.

7. 한국어 사용금지 방안

저녁 9시 이후 자유시간과 주말에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지도와 감시가 필요하다. 학생들끼리 있는 저녁 자유시간에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교사들이 지적할 때만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한국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좀 더 체계화해서 자율적으로 학생들끼리 통제하고 또 영어만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격려나 칭찬점을 주어서 포상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캠프에서는 잘하는 학생들에게 칭찬스티커를 주어서 퇴소할 때 작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이상의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박영예. (1999). 영어마을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4*(1), 197-218.

유범. (1999). 영어교육 전공 학생들을 위한 방학이용 집중 영어연수과정 개발 사례 연구. *Foreign Language Education, 6*(2), 325-350.

조동완. (1998). 몰입 영어교육 사례: 포항공대 몰입 영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53*(2), 158-178.

Cummins, J. (1980). The contrast of language proficiency in bilingual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Georgetown Round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Duff, P. (1986). Another look at interlanguage talk: Talking task to task. In R. Day (Ed.). *Talking to learn: convers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47-181). Rowley, Mass.: Newbery House. Hedge, T. (1993). Key concepts

in ELT. *ELT Journal*, *47*(3), 275-277.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an Press.

Krashen, S. & Terre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lifornia: The Alemany Press Ltd.

Scarcella, R. C. (1990). Communication difficulties in second language production, development and instruction. In R.C. Scarcella, E.S. Anderson, & S. D. Krashen (Ed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pp. 337-353). Boston, MA: Heinle and Heinle.

Wallerstein, N. (1983). Problem-posing in the ESL classroom. *Language and culture in context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부 록

정규 회화수업 주제

	Communicative Skills	Grammar / Language Points
1	Introduce Yourself & Your Family / Make Friends	Word Order /Be Verb / Greetings
2	What Do You Want Be?	Simple Present / Occupations
3	My Home and Neighborhood	Prepositions / Expletive 'there is' / Locations of Places
4	Where Are They?	More Prepositions : Impersonal Pronouns (it / there / one)
5	What Can / Can't You See? What Can You Do?	Simple Present / Negative / Contraction / Modal
6	What Are You Doing?	Present Continuous / Possessive Pronoun
7	What Does It Taste / Smell?	Adjectives / Singular & Plural Nouns
8	What's Your Favorite One? : What Do You Like / Dislike? (Expressing a Preference)	Negative / Comparative
9	Going to the Grocery Store	Future Tense
10	My Day : Calendar / Clock / What Time is It?	Numbers / Countable / Uncountable
11	Describe It (Describing simple processes and situations)	Descriptive / Attributive Adjectives
12	Health	Ordinal / Cardinal Numbers
13	How is the weather? : Seasons	Adverbs of Manner, Frequency, Degree & Place
14	Classes at School	School subjects and schedules
15	What Did You Do?	Regular Past Tense
16	At the Fair	Irregular Past Tense
17	Whose Are They?	Possessive Pronouns
18	At the Shopping Mall	Interrogatives / Future Tense
19	Asking for Directions	Imperative / Future Tense / Explaining Places
20	What are You Good At?: Sports, Art, Music	Superlative / Hobbies
21	At the Airport	Interrogatives / Getting Information
22	Signs & Signals	Imperatives
23	Which One is Nicer? (Making simple comparisons of various kinds)	Comparative / Superlative
24	What Are You Going To Do? (Plans and projects for the future and likely future events)	Future Tense

박 연 미
홍익대학교 교양과
339-701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홍익대학교 교양과
Tel: (041) 860-2290
Fax: (041) 863-2648
Email: ympark@wow.hongik.ac.kr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2001